

(가)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秦)은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李斯)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대의 『순자』 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 학문의 틀을 보여 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이에 한(漢)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 사상가는 육가(陸賈)였다.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 한 고조의 치국 계획 요구에 부응해 『신어』를 저술하였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하고,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다.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통물(統物)과,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통변(通變)을 제시하였다.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인의(仁義)라고 파악한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하였다.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이었다. 그에게 무위는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었기에 원래의 그것과는 차별된 것이었다.

육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다. 그의 사상은 한 무제 이후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였다.

	"시대"	"인물"
	전국시대	순자: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함 (통합학문)
	↓	
	진(秦)나라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기도함
		이사: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
	한(漢)나라	한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 -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중에서 육가 -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
		: '한 고조' 는 치국 계책을 요구함 -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
	『신어』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육가는 '한 고조' 의 요구에 부응함
	① 진의 단명 원인을 지적함: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군주의 교만과 사치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
	②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설득함	
		: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
	** 역사지식의 종류	
	-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통물(統物)	
	-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통변(通變)	
	[역사지식을 정치에 적용] ㉢인의(仁義):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	
	-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힘의 지배를 숭상하는 태도: 당시 지배세력의 태도)	
	-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	
	-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함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육가	[목적]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수단]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함
	'타 사상'	'효과'
	도가의 '무위'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
	법가의 '권세'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
		** 유교에 적용된 타 사상은 원래의 타 사상과 차별된 것이다.
	[육가사상의 단점]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됨
	[육가사상의 의의]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
	[육가사상의 결과]	한 무제 이후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열

(나)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은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편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고려보다 조선이 뛰어나도록 설득하고자 하였다.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지만,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에 ①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태종은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렸다. 이후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신자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는 주장이 맞서는 등 세종 대까지도 논란이 ②계속되었지만, 문종 대에 이르러 『고려사』 편찬이 완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경서(經書)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집현전 학자들과의 경연을 통해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 갔다.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치평요람』의 편찬을 명하였고, 집현전 학자들은 원(元)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하였다.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감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 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기존 역사서와 달리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하였다.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곳은 『치평요람』의 「국조(國朝)」 부분이었다.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기는 했지만 이것이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했기에 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했다. 이는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한 것이었다.

<보기>는 동양 역사가들의 견해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대부분 옛일의 성패를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하지만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는 뜻이다.
- ㄴ. 고금의 흥망은 현실의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며, 사림(士林)의 재주와 덕행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천하의 일은 시세가 제일 중요하고, 행복과 불행이 다음이며, 옳고 그름의 구분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다.
- ㄷ. 도(道)의 본체는 경서에 있지만 그것의 큰 쓰임은 역사서에 담겨 있다. 역사란 선을 높이고 악을 낮추며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다.

	[목적]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냄
	[수단]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
	[편찬자들]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 / 고려보다 조선이 뛰어난 설득하고자 함
	"역대 왕" "관련 업무 및 현황"
태조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됨
	But,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됨 [문제 상황]
태종	[대응]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
	[논란]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실자는 주장 vs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는 주장
	* 세종님 때까지 논란은 지속되었지만, 결국 문종 때 『고려사』 편찬이 완성
	이 이 과정에서 얻으신 것들: ① 집현전 학자들과의 경연을 통해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감
	② 경서(經書)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함
	세종님의 『치평요람』 : 중국(원까지)과 우리나라(고려까지)의 흥망성쇠를 담음
	[정리과정]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감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
	[편찬형식] 강목체를 따르지 않음
	[기존 역사서와 다른 점]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
	↳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 간다는 내용을 드러냄
	[의도] 당연히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전제된 것
	[집중!!] 『치평요람』의 「국조(國朝)」 부분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음 But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는 데에는 불충분함 [문제상황]
	세종님은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 [해결책]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함
	[최종목적]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한 것
	<보기> 정리
	ㄱ [우선순위] ① 진위를 분명히 함 ② 옛일의 성패를 논함
	ㄴ [우선순위] (객관적 형세)시세 > 행복과 불행 > 옳고 그름의 구분
	ㄷ 권선징악